

| 최우수작 |

## ‘차이’를 ‘차별’로 학습하는 아이들

EBS 유·아동 프로그램의 캐릭터 분석을 통해 본 성평등 교육의 현주소

이선옥

### 1. 아이들의 친구 EBS

EBS는 아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공중파 방송이며 아이들의 아침을 배려하는 유일한 공영방송이다. EBS가 방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아동 프로그램은 <딩동댕 유치원>, <만들어 볼까요>, <아빠랑 나랑 부비부비빠빠>, <똑똑 노리하우스>, <모여라 덩동댕>, <뽀롱뽀롱 뽀로로>, <토끼가 까꿍>, <바나나를 탄 끼끼>, <Go! Go! Giggles>, <몽몽 인형극장> 등이 있는데, 모두 아이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때로는 놀이 친구로, 때로는 선생ником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EBS의 유·아동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영상매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의 처지에서 공신력 있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밖에 없다. EBS 또한 이런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아동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고 제작하는 노력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EBS는 나처럼 사교육을 하지 않는 엄마들에게 유용한 학습지가 되어 주었고, 바쁜 아침시간에 아이를 봐주는 보모가 되어주기도 했다. 또한 EBS의 캐릭터들은 아직 친구라는 존재를 모르는 아이에게 친구라는 소중한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역할까지 맡아 주었다. ‘방귀대장 뽕뽕이’나 ‘짜잔형’, ‘뽀로로’, ‘뚝딱이’ 등 EBS의 토종 캐릭터들은 국내 캐릭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만화의 주인공들과 견줘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내 아이의 절반은 EBS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BS에서 방영되는 특집 또한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들이 전해 주는 다양한 정보는 아이의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어른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2005년 6월에 방영된 성교육 특집 3부작 <아이들이 시는 성>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시기적절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잘못된 성의식을 만화로 풀어내어 성문제를 재미있고 친근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접근한 이 프로그램은 어른인 나도 크게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보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아이들의 성교육 문제에 대해 주제별로 나누어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훌륭한 성교육 지침서로 많은 보육기관에서 다시 보여주었을 만큼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특히 2부에서 다룬 성차별과 성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씩씩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왕자와, 얌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불편한 공주를 주인공으로 함으로써 성역할과 성의식이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길러진다는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다. 또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한 흔적도 엿보여 반가웠다. 물론 여자 같은 왕자, 남자 같은 공주 등 이분법적인 단순한 설정이 진부한 것이나, 왕자와 공주처럼 현실감 없는 대상으로 표현한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인 성 관련 주제를 참신한 내용과 기법으로 제작 방영한 EBS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노력과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EBS도 잘 깨닫지 못한 비교육적인 모습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차별은 아이들의 성역할에 대한 학습과 교육면에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EBS의 모습을 드러낸다.

## 2. 교육방송의 비교육적인 자기모순

어린 아이들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경험과 모델링이 중요하다. 놀이나 경험,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생각은 아이의 인식체계에 남아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의식을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국 가운데 유·아동 프로그램을 거의 유일하게 방영하고 있는 공영방송인 EBS가 어느 정도로 '차별'에 무감각하고 무신경한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역할에서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분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캐릭터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EBS 유·아동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프로그램의 주요 캐릭터들이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방귀 대장 뽕뽕이'나 '짜잔형', '뽀로로', '뚝딱이', '빙고 형', '동이 누나', '웅이 형' 등 EBS 프로그램의 캐릭터들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우상이요 친구다.

그러나 EBS의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늘 여자어른은 먹여주고, 놀아주고,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돌봐주는 캐릭터(뚝딱이 엄마, 동이 언니)인 반면, 남자어른은 문제를 해결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해결사(뚝딱이 아빠, 짜잔형, 빙고 형)로 그려진다. 또한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거나,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는 존재이지만, 아빠는 전문적인 자기 일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뚝딱이네 짹).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캐릭터도 에디슨을 흉내 낸 할아버지(궁금해요 핑퐁)이다.

어른들에 대한 묘사는 이 정도이지만, 아이들이 친근하게 좋아하고 모방하기 쉬운 형, 누나, 언니 오빠, 그리고 동일시하기 쉬운 친구들 캐릭터에 이르면 그 분리는 더 심각해진다.

<방귀대장 뽕뽕이>를 이끌어가는 ‘짜잔형’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뽕뽕이’의 도움을 얻어 놀이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뽕뽕이의 여자친구인 ‘뽕순이’는 독자적인 캐릭터의 특성이 없이 그저 순이라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단 뽕뽕이의 보조 캐릭터로 공손히 인사하는 캠페인의 모델로 등장한다. 뽕순이는 얌전하고 다소곳하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방귀도 ‘꽃방귀’를 끼며 분홍색 꽃무늬 옷을 입고 있다.

‘뚝딱이’는 천방지축 말쑥꾸러기이고 실수연발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개구쟁이 캐릭터인 반면, 여자인 ‘뚝순이’는 꽃보다 별보다 마음이 예쁜 미소 짓기 선수이고, 잘 토라지고 때론 잘난 척도 하는 아이로 묘사한다. ‘뚝칠이’라는 남자친구 캐릭터는 박식한 척척박사로 그려진다.

<모여라 덩동댕>을 진행하는 두 캐릭터 ‘웅이 형’과 ‘동이 언니’ 역시 ‘형은 멋지고’ ‘언니는 예쁜’ 법칙에 충실하며, <부비부비 빠빠>의 남자아이 ‘빠빠’는 개구쟁이이고 여자아이 ‘뿌뿌’는 수다쟁이이며 거울보기를 좋아하는 공주병 캐릭터로 묘사한다.

EBS가 제작한 프로는 아니지만 <뽀로로>의 캐릭터들도 이런 분리에 익숙하다. 뽀로로 친구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 ‘루피’는 섬세하고 부끄러우며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주는 모범소녀다. 반면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남자인데 장난꾸러기이거나 든든한 말형이거나, 천재적인 발명가의 모습을 지녔다. 이들에게 루피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루피는



곧잘 이들의 놀림과 보호를 함께 받는다.

남자는 개구쟁이에 씩씩하고 멋지거나, 여자는 수다쟁이이고 귀엽거나 예쁜 틀로 정형화된 캐릭터는 EBS의 거의 모든 유·아동 프로그램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정형화된 캐릭터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주의이다.

공개방송인 <모여라 덩동맹>에서 ‘뚝딱이 아빠’는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해결사다. 번개 파워로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용사 또한 슈퍼맨을 패러디한 ‘번개맨’이라는 남자영웅이다. 반면 덩동맹 유치원의 여자 캐릭터들을 보면, ‘신나라’는 밝은 미소를 지녔지만 변덕쟁이이며, ‘공주’는 약한 척, 예쁜 척, 있는 척을 하는 공주병이다.

정의감이라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 ‘안깜찍’은 ‘미남’이 앞에서는 숙녀가 된다는 여성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뚝뚝 노리하우스>의 다섯 요정들도, ‘마로’라는 장난꾸러기 남자요정이 리더이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요정 ‘누리에’는 귀엽지만 공주병 증세가 있고 외모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묘사된다.

<기글스>의 세 요정 가운데서 리더 역할을 하는 말이 ‘스타리다(starrida)’ 또한 남자아이 캐릭터로 정의롭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장난꾸러기이다. 여자아이 캐릭터인 ‘플러리나(Flurrina)’는 의협심이 강하나 예쁜 척을 하는 단점을 지녔다.

유아 한글, 수학, 음악 프로그램인 <바나나를 탄 끼끼>의 진행자인 원숭이 ‘끼끼’도 모두 남자이며, <궁금해요 핑퐁>의 모르는 게 없는 호기심 마을의 박사님 또한 ‘에디슨’ 할아버지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정의롭고 박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룹의 리더역할을 하는 것은 모두 남자 캐릭터이다.

남자는 신뢰할 수 있고 정의로우며, 지식이 많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조직을 리드하는 능력이 뛰어난 우월하고 중요한 존재로 그려지는 반면, 여자는 상냥하고 온순하며 마음이 예쁘거나 변덕쟁이이고, 정의의 용사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지 않는 보조적이며 종속적인 캐릭터로 그려진다.

<아이들이 사는 성 2부>에서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관성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역할을 학습하게 하겠다는 EBS가 정작 자신의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나 ‘관습적’으로 ‘성차별’을 행해 왔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과도한 모성성의 강조와 도식적인 접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도 여성들이 대부분 육아를 전담하는 현실에서 돌봄 중심의 엄마 역할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일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늘어나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속의 엄마들 모습은 여전히 전업주부이며 지극한 모성성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사는 성 2부>에서도 아이 곁에서 목숨을 버리며 아이를 끝까지 지킨 존재는 결국 엄마였다. 엄마의 모성성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가치는 암묵적인 강요이다. 이제는 모성성만이 아닌 다른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엄마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이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에서도 여자다운 남자, 남자다운 여자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처럼 되는 것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양성성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체화된 특성이 자신의 모습임을 받아들이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어른들과 사회의 역할이다.

‘누구다운’ 것은 애초에 없으며, 누구도 아이들에게 어떤 특성을 강요하



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인 접근은 또 한 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 3. '차이'를 '차별'로 학습하는 아이들, 공존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번개맨처럼 정의의 용사가 되고 싶었던 나의 딸아이는 “여자는 번개맨을 할 수 없다”는 남자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왜 번개맨은 꼭 남자만 할 수 있냐”고 항변했지만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온다”는 한 마디에 저항할 근거를 잃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뚝순이’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별 때문에 좌절을 겪은 아이는 친구들보다는 자신의 성을 원망했다. ‘내가 남자였으면 번개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이의 원망은 ‘여자’라는 이유로 부반장만을 해야 했던 내 어린 시절의 원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과 좌절, 열등감 등을 21세기에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른들의 편견이 아닌 TV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차별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점은 신체적인 ‘차이’이다. 그러나 이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다르게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부과한 것일 뿐,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은 무관하다.

<GO! GO! Giggles>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EBS의 글<sup>1)</sup>에 보면, 7살 여자

아이와 남자아이의 보편적인 성격과 행동을 나타내는 캐릭터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적절치 못한 이유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단계에 적합한 발달을 도와주는 캐릭터이지 성별 보편성을 나눠 정형화시킨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7살 아이들의 성별 보편적 특성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타고난 것인가 학습된 것인가? 정형화되고 차별적인 유아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되고 강화된 특성은 아닌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EBS라면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온갖 종류의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한 '차이'로 인정하는 성숙한 인식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도 있듯, 유아기 때 체득한 습성이나 관습은 생득적인 것처럼 아이에게 체화된다. 어릴 때부터 성인지적 감수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까닭이다.

우리가 성차별에 대해 민감해야 할 이유는 성차별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의 차별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차별의 모습인 이주노동자 문제, 혼혈인 문제, 성소수자 문제 등을 대할 때 '차별'을 학습하고 자란 아이들이 이들을 차별할 확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우상이며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방송'인 EBS가, 부디 '차별'을 관습적으로 받아들여 재생산하는 아이들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인권 감수성을 지닌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하길 기대해 본다.

---

1) EBS의 <GO! GO! Giggles> 홈페이지.